

발표 요약문

청정 공급망 구축: 엔트워프 항, 로테르담 항, 주변 항만에 대한 시사점과 도전과제

테오 노트붐

상해해양 대학교, 엔트워프 대학교, 겐트 대학교, 엔트워프 해양 대학교 교수

키워드: 청정 항만, 청정 공급망 관리, 지속가능성, 탄소 중립적, 엔트워프, 로테르담, 네덜란드-벨기에 항만

청정 공급망 관리(GSCM)란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조직 간 공급망 관리 관행에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GSCM은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수송, 저장, 유동 활동과 연계하는 청정 물류 방식을 뜻한다. 청정 공급망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공급망을 보다 청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긴박감을 주지하고 있다. 본 발표에서는 청정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항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. 이어 GSCM의 기원과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특히 청정 해운, 청정 항만 개발 및 운영, 청정 내륙 물류, 순환 경제, 지식 구축 및 교환의 영역에서 GSCM에 있어 해항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할 것이다. 실증 사례로 유럽에서 화물 물동량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만 지역이자 유럽 2대 항만 (로테르담 항과 엔트워프 항)이 포함된 라인-스헬더 삼각주 지역 항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. 또한 라인-스헬더 삼각주 지역 항만 공사들과 시장 주체들이 구축한 청정 조치와 이니셔티브에 개괄하기 위해 벨기에와 네덜란드 항만물류산업이 최근 시행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. 본 발표 내용은 최근 ING Bank Belgium이 의뢰하고 엔트워프 대학, VIL (Flanders centre of excellence in logistics), Erasmus UPT (Erasmus University Rotterdam)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. 보고서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. *Notteboom, T., Van Der Lugt, L., Van Saase, N., Sel, S., Neyens, K., 2019, Green supply chains: implications and challenges for Rhine-Scheldt Delta seaports, final report prepared for ING Belgium, 17 July 2019, 121 p.*